

제 2 과 목 : 민 법

41. 권리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② 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.
-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.
- ④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.

42.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
- ㄴ.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
- ㄷ.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,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
- ㄹ.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43.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주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.
- ②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③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.
- ④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.
- ⑤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의 상대방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에게만 하여야 한다.

44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.
- ②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다.
-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.
- ④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.
- ⑤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.

45.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.
- ②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.
- ③ 법원이 선임한 비법인사단의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.
-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⑤ 다른 정함이 없는 한,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

46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.
-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, 감독한다.
- ④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,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.

47.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②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- ③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.
-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.
- 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.

48.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률행위의 취소 -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
- ② 법인의 설립행위 - 요식행위
- ③ 동산소유권의 포기 - 출연행위
- ④ 사용대차 - 무상행위
- ⑤ 저당권설정계약 - 중된 행위

49. 법률행위의 목적(내용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.
- ③ 매매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.
- ④ 권리남용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-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.

50.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.
- ②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그의 전득자가 선의인 때에는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.
- ③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하더라도 이를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본다.
- ④ 법률의 착오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.

51.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고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.
- ②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.
- ③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.
-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.
-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, 그 최고는 이를 받은 때 효력이 발생한다.

52.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.
-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③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④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,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.
- ⑤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.

53.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.
- ② 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.
- ④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.
- 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.

54.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.
- ②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.
- ③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어서는 안되고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.
-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으로 곧 공박, 경술,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.

55.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과실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
- ②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.
- ③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에 대한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- 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
56.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면 그 채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허용될 수 없다.
- ㄴ.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유효하다.
- ㄷ.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.
- ㄹ.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.

- ① $\neg, \perp$ ② $\neg, \exists$ ③ $\neg, \perp, \exists$
④ $\perp, \neg, \exists$ ⑤ $\neg, \perp, \neg, \exists$

57. 민법 제125조(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), 제126조(권한을 넘은 표현대리) 및 제129조(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임의대리인이 사자(使者)를 이용해서 대리인의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
- ②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내지는 유사한 것 이어야 한다.
- ③ 소송행위에도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.
- ④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.
- ⑤ 공법상의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.

58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②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.
- ③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
- ④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.
- ⑤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
59.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.
- ②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③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수인이 등기를 한 때이다.
- ④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.

60.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
- ④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- ⑤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.

61.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.
-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.
- ④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.
-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.

62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②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.
- ③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.
- ④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인이 될 수 없다.
-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.

63.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.
- ②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.
- ③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경매에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.
- ④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.
-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.

64. 계약의 법정해제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③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.
- ④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면 해제권 행사의 효력은 소멸한다.
- ⑤ 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(時期)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65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.
-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.
-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⑤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66.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②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- ③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④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- 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.

67.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다.
- ②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선이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④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그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68. 동산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 동산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.
- ㄴ.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.
- ㄷ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.

- 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69.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변제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.
-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.
- ③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④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-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70.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.
- ②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.
- ③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④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.
- 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.

71.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,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.
-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④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.

72.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②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- ③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,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④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⑤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.

73.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증여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다.
- ②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된다.
- ③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④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⑤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,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74.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대주는 차용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담보책임을 진다.
- ③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·수익하게 하지 못한다.
- ④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,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⑤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75.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임차인이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.
- ②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,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종료 전이라도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,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,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76. 종신통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체물도 종신통기금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.
- ② 제3자는 정기금채권자가 될 수 없다.
- ③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 하면 정기금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여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종신통기금계약을 해제한 경우,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- ⑤ 유증에 의해서도 종신통기금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.

77.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- ㄴ.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ㄷ.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ㄹ. 화해계약이 성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 전의 법률관계는 유지된다.

- ① $\neg, \perp$ ② $\neg, \perp$ ③ $\neg, \perp, \vdash$
④ $\perp, \vdash, \neg$ ⑤ $\neg, \perp, \vdash, \neg$

78.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.
- ②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여행주최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여야 한다.
- ③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,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.
- ④ 여행자는 여행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.
- 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는 시정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79.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,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임치인의 승낙으로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그 제3자의 선임·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④ 임치인은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알고 있더라도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⑤ 유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.

80.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.
- ②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.
- 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계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, 그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⑤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